

# 통도대중이여! 정견이어야 합니다. 총림의 해제가 웬 말입니까?

작금에 통도사에서 후임 주지의 문제로 설왕설래 하더니 급기야는 산중총회를 열어 총림을 해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통도사 주요현안으로 포장하여 입회의 소집과 논의를 주장하더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판단해서 일까요. 끝내 세력을 믿고 산중총회에서 총림을 해제하고 주지를 선출하려는 옳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는 통도사의 극히 일부 스님들의 행태를 정리하면.

- 첫째, 본사 주지의 각본대로 이루어진 산중총회입니다.**
- 둘째, 전체 대중을 우롱하는 산중총회입니다.**
- 셋째, 종단 원로요 산중 어른이신 방장스님을 모독하는 산중총회입니다.**
- 넷째, 제54회 임회는 처음부터 중무소의 농간이었습니니다.**
- 다섯째, 중무소가 앞장서서 방장스님의 권리와 권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 여섯째, 주지는 불법 산중총회를 공고하고, 자격 없는 스님이 주지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통도사가 어떻게 되던 불교가 어떻게 되던 그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나 불교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통도사에서 일부 스님들에 의하여 종현과 종범이 유린되고 승가의 정신이 멸실될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영축총림은 일부 스님들의 총림이 아닙니다. 온 나라의 총림이요 한국불교의 총림입니다. 주지를 하려는 욕심에 총림까지 해제하려는 저들의 끝없는 욕심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영축총림의 통도사 법통을 수호하고 청정승가를 위해 저희들은 온 인류와 부처님과 불자님들께 참회를 드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수행과 포교에 매진 할 것을 저희들 스스로 다짐하고 호소하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이제 저들의 옳지 못한 행태를 하나하나 큰 틀에서 생각해 보려합니다.

### 첫째, 주지의 각본대로 이루어진 산중총회입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이미 산중총회로 가려했습니다. 입회나 산중의 어른스님들의 결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4월5일 취소된 입회의 좌담회에서 주지스님은 산중총회를 언급하더니, 입회가 열리기도 전인 4월19일자로 되어 있는 과문서의 제목이 **“영축총림 통도사 산중총회를 요구하였다.”**입니다. 산중총회는 산중총회법의 제6조에 의하면 총림의 방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에 달한 경우와 총림 방장스님 궐위된 경우에만 소집할 수 있는 회의 임에도 불구하고 통도사의 주지가 앞장서서 4월5일 좌담회에서 주지가 분위기를 따우자 몇몇 스님들이 18일 경주힐튼호텔에서 저녁공양을 빌미로 아는 스님들을 불러내어 미리 준비한 과문서에 서명을 부탁하여, 19일자로 과문서를 중무소에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지스님은 이렇게 이미 계획된 수순에 따라 산중 총회의 소집을 공고하였습니다. 어찌 이런 종범이 유린되는 상황이 통도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애초에 이들은 대중의 화합에는 관심이 없고 종현과 종범에도 관심이 없는 스님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통도 전 대중이 모신 어른이신 방장스님을 ‘극락 방장’이라고 하면서, 어른을 어느 한 문종의 방장으로 능욕( 능弱)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전 통도의 대중들을 눈먼 스님들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통도사는 항상 어른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어른의 가르침을 지키고 소중히 하면서 살아온 총림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풍이 풍전등화가 되었습니다. 오직 세속적인 권력과 정치적인 힘만이 살아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종범에서 방장스님께 주어진 권위와 권한을 무시하고 방장스님의 총림 주지 추천권에 **‘대중 동의권과 대중 결의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의 뜻을 물어 추천권이 행해져야 합니다. 전대중이 모여 방장스님을 모실 때 이미 그 안에 대중의 동의권과 결의권을 드린 것 아닙니까. 산중총회에서 방장스님을 만장일치 추대할 때, 그때 대중들이 주지 추천권에서 대중의 동의권과 결의권을 빼고 추대하였기 때문에 다시 산중총회를 열어 대중의 동의권과 결의권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대중들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방장스님은 통도사에서 전 방장스님께서도 하셨듯이 산중의 어른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려 하시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방장스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협의 하려는 스님이 자신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방장스님께서 어른들과 협의 하려는 인물이 자신들이었으면 저들은 절대 저런 행동을 하지 안했을 것입니다. 방장스님께서 법에 따라, 그리고 산중의 전통인 어른스님들과 협의해서 추천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뿐 만 아니라 어른스님들의 협의와 논의를 아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어찌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하는 대로 두면 종범은 항상 힘에 의하여 유린되고 승가의 전통은 모두 사라져 결국 부처님의 법이 이 땅의 대중들로부터 떨어져 한반도가 인도네시아나 인도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 총림의 원로 대덕스님들과 선후배 스님들의 격려와 관심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방장스님께서 종범으로 보장된 차기 주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시는 것은 통도대중의 화합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장스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통도사 대중들은 이시대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어른을 음해하고 헐박하고 욕되게 해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방장스님을 모시고 방장스님의 권위를 세우고 방장스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수행해서 견성성불해야 함을 저희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 둘째, 전체 대중을 우롱하는 산중총회입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통도사의 불은 없습니다. ……총림을 분란케 하고, 어른스님들을 회유·조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진정 수행자의 언어인지 의심이 갑니다. 참으로 그 많은 세월 한 술에 밥을 먹고 한 지붕 아래 잠을 자던 선배요 후배 스님들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집단에서 반대 집단을 우롱하고 중상 모략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불이 없더니, 통도사 전 대중을 분열로 몰고 가는, 놀랄 말을 어찌 전 통도의 청정대중을 향해 할 수 있는지, 이들이 과연 우리 영축총림의 대중으로 지금까지 어른들을 모시고 살아온 우리의 아름다운 사풍(寺風)을 계승하고 있는지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엄중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저들이 아니겠습니까.

### 셋째, 종단 원로요 산중 어른이신 방장스님을 모독하는 산중총회입니다.

또 다른 4월20일자의 ‘영축총림 대중스님께 씁니다.’ 라는 제목의 과문건에서는 방장스님께서 **“나는 ‘집지키는(뉘)다. 나는 방을 지키는 사람’ 이라는 말로 대중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말은 ‘나는 방장이 아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살아계신 부처’ 로 추앙받아야할 총림방장의 말씀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로, 방장이 집지키는(뉘)이면 도대체 총림대중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라는 너무나 대중으로서 낮은 들 수 없는 한심하고 안타까운 말을 합니다. 함께 한 술 밥을 먹는 대중들이 자기 집안 어른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동안 지금도 행건을 차시고 대중과 함께 새벽예불과 대중공양과 사시예불에 빠지지 않는 법이 없는 이런 어른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들은 스스로를 겸양의 표현으로 산승(山僧), 남승(衲僧)이라고 까지 하지 않습니까. 집을 지키고 방을 지키고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 허물이란 말입니까. 혹여 이 말씀을 문제시하는 스님들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절을 지키지 않고, 방을 지키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로 세상에 너무 자주 출입하는 스님들이라서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그렇까요.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그리 많이 한단 말입니까. 분분사(本分事)의 일로 불지라도 제1구(第一句)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안목이 없는 줄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나는 방장이 아니다’ 라는

말과 같더니, 그 안목이 한심하고 한심합니다. 우리들 귀에는 집이 일심(一心)의 집으로 들리고, 방이 일물(一物)의 방으로 들리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어른 앞에 답하지 못하는 저희들은 부끄러울 뿐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한 줄만 내려가면 또 정신 차린 말도 있기는 합니다. 다음 아닌 ‘살아계신 부처’ 로 추앙받아야 할 분이라고 하였으니 말입니다. 나의 태도나 마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만 추앙받아야 할 분이라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이 추앙하는 스님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중의 화합을 깨는 과문서의 주인공들은 발로 참회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주지스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요.

### 넷째, 제54회 임회는 처음부터 중무소의 농간이었습니니다.

4월 5일 개최하기로 한 제54회 임회는 처음부터 잘못된 임회입니다. 처음부터 방장스님께서서는 입회의 개최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방장스님의 주지추천의 문제는 입회의 안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장스님께서서는 차기 주지의 추천은 산중의 어른스님들과 논의하여 결정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통도사에서 주지 추천의 문제로 임회가 열린 경우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으로 임회가 열린다면 방장스님께서 차기 주지는 어떤 스님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임회에서는 항상 어른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하시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대중들도 그렇게 알고 어른들을 모시고 열심히 정진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 통도사의 아름다운 전통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차기 주지 문제로 임회가 열린 것을 방장스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산중의 중요한 현안이라는 명분으로 방장스님을 계속 압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임회에서 토론하고 의결을 하기로 하면 저들은 임회회원의 구성상 자신들이 자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방장스님은 처음 중무스님(임회간사)이 “임회를 열어야 하겠다”고 해서, 방장스님께서서는 ‘무슨 안건이 있느냐’고 묻자 서너 가지 안건이 있다고 방장스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임회를 소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서너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도 드리지 않고, ‘차기 본사 주지에 관한 건’ 하나만 가지고 방장스님께 보고도 없이 중무소에 있는 방장스님 직인을 찍어 소집한 임회가 4월5일 제54회 임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임회의 소집 통보입니까. 회의 소집권자인 방장스님께 보고도 없이 서너 가지 안건은 간데없고, 임회에 상정할 안건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임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차기 주지 문제로 임회를 소집하지 않으시려는 방장스님의 뜻을 알면서 방장스님을 보필해야 할 중무소 소임자가 정반대로 방장스님이 하지 않으시려는 것을 알고 온갖 이유를 들어 방장스님을 압박하고 회유하고 나중에는 보고도 결제도 없이 발송되어 소집된 임회가 정상적으로 열려야하는 임회인가 말입니다.

임회의 소집 통보서가 도착하고 나서야 차기 본사 주지에 관한 건으로 임회가 소집됨을 아신 방장스님께서서는 이런 임회는 열려서는 안 되니 임회를 취소하라고 수차 지시 하셨으나, 이러한 방장스님의 뜻은 과문건에 나와 있듯이 “중무소 소임자들과 상의하겠다. 산중의 중요 현안입니다. 방장스님을 보호해 드리는 일입니다. 등등”의 이유를 들어 정변전에 계시면 정변전으로 찾아오고, 비로암에 계시면 비로암에 찾아와 중무소의 임장만 얘기하니, 횡든 방장스님은 알았다 하고 내려 보내면 그들은 ‘아! 방장스님을 설득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취소하라고 지시하면 또 온갖 이유를 들어 끝까지 취소하는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니다. 이것이 어른을 모시는 모습입니까. 그래서 결국 방장스님은 산중의 뜻에 따라 임회를 취소하신 것입니다. 방장스님께서 힘드셔도 산중의 전통을 계승하고, 방장스님을 중심으로 산중의 어른스님들과 협의하여 차기 주지를 추천하려 임회를 취소시킨 것입니다. 낱말은 다가오고 중무소는 말을 듣지 않으니 4월1일 구주계산림이라는 종단의 중요한 불사가 마무리 되는 날을 기다려 토요일에는 문서가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전 일찍 발송하라 지시하시고, 주지스님께는 점심 공양이 끝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주지스님은 그 순간 까지도 임회를 주장하고 방장스님의 지시를 실행하려 하지 않았습니니다. 방장스님의 일은 방장스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지가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지만 방장스님의 결정을 주지는 존중하여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지스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무소가 방장스님 위에 군림했던 것입니다.

### 다섯째, 중무소가 앞장서서 방장스님의 권리와 권위는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일자 과문건에는 **“임회 취소의 사유도 없는 사문서였습니다. 이에 중무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적법절차에 의해 소집된 제54회 임회는 개최되어야 한다. 사문서는 공식문서가 아님을 확인 한다’ 라고 의결하였습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장스님께서 보내신 문서에 취소 사유가 없다고 말하는데 54차 임회는 처음부터 잘못 소집된 임회입니다. 방장스님을 속여서 소집한 임회인 것입니다. 이 임회를 취소하는데 어떤 사유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사회법적으로도 소집권자가 소집한 회의를 취소할 사유와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7.4.12.선고2006다77593판결을 참조바람) 그런데 중무소는 더 가관입니다. 이번 통도사가 흔들리는 중심에는 이런 중무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장스님을 모시고 보필해야할 중무소가 방장스님의 행보를 방해하고 이익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무회의가 오늘의 통도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장스님께서 보낸 문서가 사문서라고 합니다. 방장스님의 직인은 중무소에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중무는 말을 듣지 않아서, 방장스님이 손수 서명하고 날인하여 보낸 것이 사문서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사문서라는 판단을 중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임회의 감독을 받는 중무소가 임회의 시비를 가리는 기관입니까. 통도사의 시끄러움에는 이런 불법적이고 오만불손한 중무소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20일자 과문건에는 또 **“방장스님은 총림의 중요현안을 결정짓는 임회를 소집하여 놓고 임회위원 스님들과 주지 스님, 중무소를 모두 부정하고, 그 고유의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였던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올렸듯이 54회 임회는 중무소와 임회간사인 중무에 의해 소집권자인 방장스님의 뜻과 다르게 소집된 임회를 산중의 대중들의 건의와 본인의 소신에 따라 되돌린 결정이지 누구를 부정하거나 본인의 직무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오히려 직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려는 방장스님의 강한 의지를 보이신 행동인 것입니다.

### 여섯째, 주지는 불법 산중총회를 공고하고, 자격 없는 스님이 주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주지스님께서 이들의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처음 계획대로 산중총회 소집 공고를 내었 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종현과 종범을 따르고, 산중의 전통에 따라 소임을 보여야할 주지스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산중총회법의 제6조의 회의 소집요건을 규정하는 조항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자, 엉뚱하게도 종현 제106조 제2항과 산중총회법과 총림법을 임의로 해석하여 총림대중 누구도 원하지 않는 총림해제의 산중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종현 종범을 이렇게 임의 해석하여 종단을 어지럽히고, 적멸보궁 통도사를 화합이 아닌 분쟁의 도랑으로 만드는 데 주지스님이 앞장서는 모습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지스님은 문제가 더 확대되기 전에 빨리 산중총회를 취소하고 통도의 사부대중과 종도들과 국민들 앞에 빨리 대 참회를 하시길 앙망합니다.

저들이 추천하고 있는 Y스님은 어떤 분입니까. 동국대학교 이사장 시절의 과오로 전 종단을 축발으로 만들고, 한분의 유능한 국가 인재를 사지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심 깊은 불자는 지금 개종했습니다. 또한 본인은 중무원법사 주지에 나갈 자격도 없는데 자속하기는커녕 자신이 주지를 하겠다니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어른을 잘 모시지 못하고 정진을 게을리 해서 한국불교 근본 도량인 불지종가 통도사에서 이러한 불미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하여 종단과 어른스님들께 누를 끼치고 불조에 허물을 만들었으니 어찌 참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머리 숙여 참회 드리며 어른스님들과 대중스님들께서 자비로 섭수해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 영축총림 통도사의 법통을 수호하고 청정승가를 위한 모임 일동 구배